



돈화문민요박물관 조감도.

/서울시

### 돈화문민요박물관 민요 자료 공개구입

서울시, 기록·문헌 등 16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돈화문민요박물관(가칭)'의 전시·아카이브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공개구입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돈화문민요박물관에서 찾는 자료는 잊혀져가는 민요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 문헌, 사진 등이다.

시는 ▲민요 현장 조사 자료(가장 실황 자료, 현장 조사 결과물, 민요 채집·연구 관련 문건) ▲민요 수록자료(해방 전 출간도서, 잡지, 엽서 및 민요 주제의 시나리오·포스터 등) ▲생활문화 자료(고지도, 풍속화, 놀이문화, 장례 의식, 세시의례 관련 자료) ▲국악로 관련자료(이왕직악부, 조선성악연구회, 일제 강점기 극장 관련 자료) ▲국악 음반, 음원(SP, LP)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민요 관련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을 해야 한다.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자료,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 기간은 11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다. 서울시청 박물관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12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목록 등 접수와 관련된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할 수 있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대해 개별 통지한다. 이후 2차 실물 접수를 진행해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 자료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시설 추진단 박물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우리나라의 첫 민요 전문박물관이 2019년 10월 창덕궁 앞 돈화문로에 문을 연다"며 "돈화문민요박물관이 누구나 우리 민요의 맛과 멋을 느끼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료 공개구입에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우수소상공인 박주선씨 등 16명 시상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 수여

서울시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 시상식을 열고, 총 16명을 시상한다고 4일 밝혔다.

38년 동안 생명의 전화 상담사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선 씨, 저소득 소아암 환자에게 산삼을 기부해오고 있는 박형중 씨, 장애인 취업교육에 앞장선 김남홍 씨 등이 시상대에 오른다.

불우이웃에게 물품을 기부해 온 박철순 씨,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오천호 씨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베풀어 온 소상공인들도 상을 받는다.

시는 지난 7월 16일~8월 17일 홈페이지

지 공고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천받았다. 공헌 활동 내용, 활동 적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표창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수상자에게 서울시장 표창장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증 점포' 현판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시는 소상공인들의 공헌활동이 확산되도록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의 근간이자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라며 "선행과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숨은 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5년간 '공동체 전문가' 656명 채용

시·군 인건비 50%씩 분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년 37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년 동안 '공동체 전문가' 65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동체 전문가는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 등 컨설팅에 나서게 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시·군 여건에 따라 기간제 근무자로 일할 수도 있다.

채용 대상은 공동체 활동 경험이 풍부

한 현장활동가이며 도와 시·군이 인건비를 50%씩 분담한다. 도는 '공동체 활동 전문가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활동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 분야의 인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래된 나무·폐유리병 등 재활용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재개관

서울시, 정책·포토 등 4개존 구성

서울시는 5일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를 새로 단장해 재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 참여 공간 조성을 위해 2013년 개관했다. 시는 내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말 노후 시설,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등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오래된 나무, 폐유리병, 폐교 마룻바닥 자재 등을 재활용해 지어졌다. 방문이나 교육 참여를 통해 매년 2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참여형 전시물을 설치해 재미와 흥미를 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History 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존 ▲참여존 ▲포토존 등 총 4개의 존을 구성했다.

'원전하나줄이기 History존'에는 시선 이동에 따라 정보가 바뀌는 렌티큘러(Lenticular)를 적용했다. 이곳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존'은 디지털 콘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텐츠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정책별 사업내용, 행사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존'에서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시민, 마을, 단체별 참여 가능한 정책(E-Start)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몇 가지 설문을 통해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포토존'은 정보센터 앞 공간에 꾸러졌다. 방문객들은 원전하나줄이기 상징

인 동글이와 아트트릭이 설치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서울에너지 전광판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의 현황과 주요 성과, 지역별(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투어 코스 정보를 제공한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상시이용시설은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생산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무료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방문후기 이벤트, 열쇠고리 체험 프로그램 등 방문객 참여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누구나 쉽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에너지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비닐봉투 무상제공땀 과태료 300만원

서울시, 5~9일 점포 등 집중단속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대상 제외

서울시는 5~9일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합동 점검에 나선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한 대형마트, 슈

퍼마켓, 편의점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점반은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 억제, 상품 추가 포장 자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비구니 사용 권고 등을 계도한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8~9월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곳을 점검, 8건을 적발하고 총 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비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곳곳 공원 사진으로 즐기세요”

서울시는 5일부터 14일까지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018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 사진전 - 공원은 놀이터'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원 수작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시는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시는 전시를 통해 공원사진사로 선발돼 활동 중인 72명의 작가가 서울의 공원과 이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 전시는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린이놀이터 시민 공모 수상작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4개의 구조물로 구분돼 전시된다. 첫 번째 구조물에는 공원사진사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 여의도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즐거운 표정과 아름다운



'2018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 사진전' 전시 작품. /서울시

공원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조물에는 서울의 공원사진사, 사진전 참여 공원사진사 소개 및 활동 사항이 함께 전시된다. 공원사진가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 구조물 역시 공원사진사들의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 사진전  
공원사진사 72명 촬영 사진 공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남산공원, 서울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로 7017 등에서 촬영한 사진작품을 통해 서울 공원의 사계와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구조물에는 어린이 놀이터 특별전이 꾸러진다. 서울시 창의어린이 놀이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린이놀이터 시민 공모 사진 작품이 전시된다.

사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토·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최윤중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서울의 공원과 공원사진사 제도를 소개하고, 공원사진사들에게는 서울의 공원을 아카이빙(archiving)하는 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진전을 개최했다"며 "전시회를 통해 공원이 도심 속 여가 활동과 놀이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